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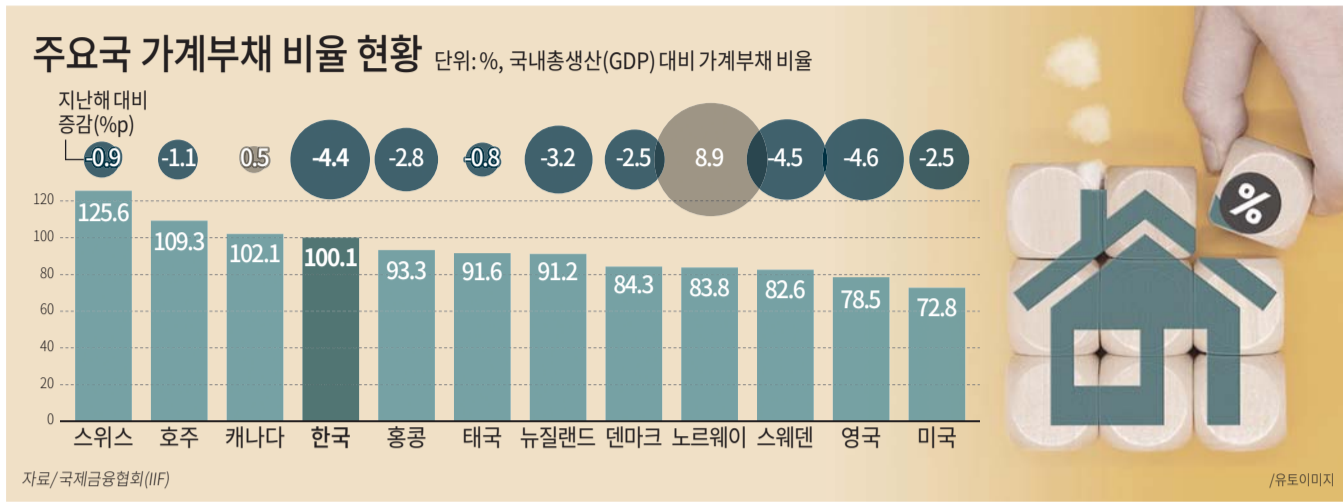
韓, GDP 대비 가계부채 100.1%... 감소폭 4.4%p '세계 3위'

세계 평균 61.5%... 1.5배
연내 100% 이하 달성 전망
기준금리 인하 여부 변수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2개국 중 4위 수준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올해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1년 전과 비교해 4.4%포인트(P) 하락했다. 전 세계 평균인 61.5%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보다 높은 셈이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3분기 100.5%로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이후 2021년 105%까지 올랐다. 당시 부동산



과 주식 호황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족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 **韓, 가계부채 빠르게 감소**
국가별로 살펴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가 125.6%로 가장 높았다. 1년 전(126.4%)에 비해 0.9%p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뒤이어 호주는 지난해보다 1.1%p 하락한 109.3%를, 캐나다는 0.5%p 상승한

102.1%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말 83.1%에서 2023년 말 78.5%로 4.6%p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4.4%p 하락해 하락폭 3위를 기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말 KB·신한·하나·우리·NH농

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792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779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말 3조7616억원, 올해 1월 2조9048억원에서 2월 4779억원으로 증가폭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가계부채 '안정화'까진 아직 일리**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지더라도 안정화됐다고 보기엔 이

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신흥국 46.8%, 선진국 70.3%, 세계 전체 61.5%인 것으로 봤을 때 100% 안팎으로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높다는 설명이다.

한은관계자는 "가계신용비율이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가계부채 비율을 빠르게 낮출 경우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감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가계부채 변수는 기준금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연 3.50% 수준인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 이럴 경우 부동산 투자 수요가 꿈틀거리며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6G 등 첨단기술 총망라... 韓 통신사 선두경쟁

MWC 2024 폐막
SKT 글로벌 AI 합작법인 설립 추진
KT 구글 등 빅테크 기업 협력 모색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가 나흘 간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MWC는 통신이 주인공인 행사이지만 올해의 핵심화두는 인공지능(AI)과 미래교통수단이었다. 통신사들은 본업인 통신을 벗어던지고 AI 무선통신 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협업에 나섰다.

4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따르면 총 10만1000명이 지난 달 26~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 비아에서 열린 MWC 2024를 찾았다.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240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 중 한국 기업은 165개사로 전체 참가국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이번 MWC는 '미래가 먼저다'를 주제로 열린 만큼, 올해는 통신보다 첨단 기술이 흐름을 이끌었다. 참가 기업들은 완전 자율 주행차는 물론 도심 항공 교통(UAM)·홀로그램 등 미래 6G(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본격화할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 **통신사, AI 제조사에 협력 요청**
통신사들은 빅테크 기업에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기존 통신업을 탈피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한 협업에 나섰다.

SK텔레콤은 MWC 개막 첫날인 지난 달 26일 도이치텔레콤과 이앤(e&), 심텔,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통신사들과 AI 공동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5개 통신사는 올해 안에 합작법인을 세워 통신사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KT도 자사를 'AICT 서비스 회사'로의 전환을 밝히며 향후 사업 전략에



유영상 SKT 사장이 MWC2024 현장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GTAA 합작법인 및 자사의 AI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SKT



김영섭 KT 대표가 MWC2024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간담회를 열고 회사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KT

AI가 중심에 있음을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가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다"며 "MWC에 와서 KT가 향후 나아가갈 방향과 전략적 설정이 맞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을 본업으로 꼭 쥐고 있으면 성장이 안되고 AI를 잘해야 통신도 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통신사는 AI 제조사에도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 CEO들은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를 높게 평가하고 삼성전자 부스를 일제히 찾았다. 이에 삼성전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SKT는 AI 기반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타트업 휴메인(Humane)과 협업키로 했으며, LG유플러스는 AWS와 AI 활용 극대화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맺었다. KT는 메타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 경영진 미팅을 갖는 한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AI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특히 MWC 주최 측인 GSMA와 오는 2024년 M360 APAC 서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데 적극 나서려는 모양새다.

◆ **챗봇부터 플라잉카 구현**
국내 통신사는 물론 삼성전자와 해외 빅테크들도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도 선보였다. SKT는 MWC 2024에서 SKT는 전 시관에서 ▲고객지원 AI 상담센터 ▲챗봇이 구현된 버추얼 에이전트 ▲AI 기반의 스팸·스미싱 필터링 시스템 등 통신사 특화 LLM을 기반으로 여러 적용 사례를 선보였다.

KT도 'AI LIFE' 존에서 LLM(거대언어모델)이 적용된 AI 반도체, 소버린 AI 사례 등 초거대 AI가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GSMA와 'AI를 통한 디지털국가 발전'이라는 주제로 2024년 M360 APAC 서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미래교통수단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SK텔레콤이 선보인 도심 항공 교통기체와 미국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 로노틱스의 플라잉카에 이목이 집중됐다. SK텔레콤은 전면 대형 LED를 통해 김포공항-위커킬 노선 비행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고흥·양평에 구축한 시범 상공망 테스트베드에서 항공 통신망 품질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첫 판매

원리금 보장... 年 1조 수준 발행 전망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계약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국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입·발행 중에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올해 6월 첫 발행 예정이며,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리금 보장으로 10년물과 20년물로 연간 총 1조원 수준에서 발행이 예상된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해당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에는 불가할 수 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41% (세후기준 35%),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99% (세후기준 84%)로 추산했다. 세전기준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년물이 4.1% (세후기준 3.5%), 20년물은 4.9% (세후기준 4.2%)다. 물론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20년 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며 "나이, 소득 구분없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최소 3개월 정지...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도

» 1년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서 계속

단,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 전공의들에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전공의들이 내려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가 최소 3개월이 정지되는 만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

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30% 가량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